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고도 유익함이나
(빌립보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권

이슈 머씨 메히 써자이해!

-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

단기선교 스리랑카 및 인도팀 22일, 23일에 각각 출발

중국 1팀과 방글라데시팀 그리고 수단 팀에 이어 이번주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스리랑카팀(지도 이승수 목사, 단장 신광식 집사, 대원 송원식 전도사 외 8명)과 인도팀(지도 김동하 목사, 단장이종국 장로, 대원 김영길 집사 외 9명)이 선교지를 향해 출발한다.

스리랑카팀은 7월 30일까지 8박 9일에 걸쳐 우선 콜롬보 및 갈리, 수보트 등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에 출석했던 40여명의 귀국 근로자들을 심방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찾아 관계 중심으로 전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콜롬보대학 등을 방문하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열매로 현지교회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거시적인 선교비전을 품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강도높은 기도 및 이른 교육과 더불어 전도 및 생활을 위

한 90마디의 스리랑카어를 익혀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인도팀은 8월 3일까지 11박 12일에 걸쳐 세 팀으로 나뉘어 편잡과 캄커다, 그리고 아그라 등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도팀 역시 다른 모든 팀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준비된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 선교과라마와 몸단양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현지 상황에는 전도지도 제작했다. 특히 상황에 맞춘 눈높이 선교를 위해 자매들의 경우 현지인 복장을 갖추어 전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미 앞서 다녀온 선교팀들의 경험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익히 간중된 바 있다. 따라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 계속되는 선교사역을 위해 뒤임없는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두 배로 바블수록
두 배로 기도해야

여름철, 직장가 가정의 다사다난한 일들 외에도 증폭되는 교회 행사들과 휴가 등으로 분주해지는 때이다. 그러나 두 배로 바블수록 두 배로 기도한다 단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은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교훈으로 확증된 한 단.

이에 아래와 같이 충현기도원의 차를

운행시간을 안내한다. 이번 여름, 충현의 온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뜨거워지는 기도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요일	교회 → 기도원	기도원 → 교회
월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화	오전 10시	오전 6시
	오후 7시	오후 2시 30분
수	오전 10시	오전 6시
	수요2배배우	오후 3시
목	오전 10시	오전 6시
	오후 7시	오후 3시
금	오전 10시	오전 6시
	금요집회 후	오후 3시
토	오전 1시	오전 1시
	오전 10시	오전 5시
		오후 1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금주에도 6개 부서에서 진행

여름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에는 유·초·소년부를 비롯하여 총 8개 부서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이번 주에도 영아부, 유아부, 유주부, 중등1부, 여바다부 그리고 실로암전망대 등 6개 부서에서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선포되고 복음을 깨달아 용서와 결단 기쁨이 영아들로부터 실로암전망대원들에게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의 열심있는 용원이 기대된다.

충현소석장학금
신청안내

1998년도 전반기에 충현소석 장학금으로 선발되었던 중·고·대·대학원 및 신학원생들의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는다. 장학금 청원서는 교육국(교육관 103호)에 비치되어 있다.

- 제출서류: 장학금 청원서, 학업계획서, '9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서류미감: 1998년 8월 9일(주일)
- 문의: 교육국의 장학회 담당자

농어촌전도대
이번 주에 13개팀 출발

축조전도와 전도집회, 집짓기 등을 통한 복음의 실천

농어촌전도대 13개 팀이 7월 20일부터 25일에 걸쳐 사역지들을 향해 연속 출발한다. 교구에서는 총 5개팀(10, 13, 15, 16, 17교구)이 나가고 그밖에 고등부 2개팀, 대학부 3개팀, 청년1부 2개팀, 그리고 청년2부 1개팀 등이다.

전체적으로 축조전도와 농어촌 열순돌기, 이·미용봉사, 그리고 의료봉사 등을 병행하면서 지역에 따라 성경행화를 인도하거나 마을주인 초청집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어촌 복음화에 일조하게 될 이번 팀들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기도로 준비해 왔다. 모든 팀들이 특성에 맞게 성실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중 특히 대학부 2학년은 8월 10일에 떠나게 될 3학년 팀과 더불어 헤비타트운동(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에게 집지어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태백시 황지동 주민들을 위한 집짓기 행사를 통해 주민 안



에서 함께 지어저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주에 떠나는 농어촌 전도대들이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 중에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한편 지난 주간에는 3교구(사진)와 12교구 전도대가 각각 경기도 화성의 우정교회와 강원도 철원군의 군부대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교사 모집

- 기간: 1998년 8월 10 - 14일(4박 5일)
- 장소: 신촌중학교(춘천소년원)
- 강사: 이숙향 목사, 박양덕 전도사
- 참석 대상인원:
 - 소년원생 약 350-400명
 - 지도직원 65명
 - 춘천교회 교정전도교회원 및 자원봉사 교사 40명
- 문의: 교정전도회(본당 103호, 구내전화 207번)
 - 박양덕 전도사(565-3723)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는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각 지회에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를 받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 기간: 7월 마지막 주일까지
- 시간: 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난 7월 10일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의 보고를 통해서, 또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서 거듭 확인된 한국인 기업주들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학대 상황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수직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 대신 빵을 때리는 손길과 견어치는 발질을 받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에 몰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의 약점을 잡고 학대하는 손길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심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조하는 사람들도 껍데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줄 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김 창 인 목사

구원의 성곽

(이사야 26:1-4)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의 성 안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모든 좋은 것을 영혼과 육신에 늘 채워 주십니다. 또한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본 문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시온 산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의 백성들은 짓밟히고 그 높은 성벽은 허물어지는데(사 25:12) 유다 백성은 건고한 성읍을 자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1.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의 성곽으로 보호하십니다

“... 우리에게 건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셨고 성곽과 벽을 삼으시리로다”(1절)

하나님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성을 두 겹으로 쌓으셨습니다. 안으로는 내성을 쌓으시고 밖으로는 외곽을 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성도를 보호하심이 완전함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성곽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성곽은 원수에게서 성도를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으셨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성곽은 성도에게 질서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훈련장입니다.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질서있는 통치를 받아야 참된 신자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생각하면 법이나 원칙을 슬쩍 넘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되면 공방에 간수를 뿌리고 두부를 거두려는 식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두부가 공방에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배가 고파서 허덕일 때에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없어도 5천 명을 먹이고 남게 하신 수 있었습니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바친 때에도 구원을 그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가서 50명씩, 50명씩 앉혀라”고 하신 후 기도하시고 나서 먹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 먹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셨고 성곽과 벽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성 안에 모으시고 질서있게 통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질서있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성곽은 성도들의 모든 생활 필수품을 준비해 놓은 보금처

입니다. 성에는 보통 3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비축해 둡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당장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곽을 쌓으셨다는 말씀은 구원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 즉 하늘의 물, 반석의 물, 진리의 떡, 성령의 생수 등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성 안에만 들어 가면 영혼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육신은 생명의 구에 배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쌓으신 성은 돈이나 흙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구원으로도 쌓은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대 생물을 살았습니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큰 보자가 되었습니니다. 이 고장 저 고장으로 돌아 다니는 그대에게 돈이 많으면 도적이 습격해 올 위험이 많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성곽으로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집에는 도적이 들어올 생각을 못했고, 아브라함을 도친 나라가 없었습니니다.

2. 구원의 성곽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2절)

첫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마음문을 열고 시온을 향하여 사랑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연다”는 말은 모든 비밀을 내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도 욕심도 인정도 내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모든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 마음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마음 중심에서 모셔들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둘째, 주님이 닦아 놓으신 길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 들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고 영접하실 때에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오실 때에 마음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때에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신분증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찾아 오신 하나님을 마음문을 열고 모셔 들으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신임과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 신(信)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이다”(2절)

구원의 문에서는 ‘신을 지키는 자’만 영접합니다. ‘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람에게 신용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성 안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물질에 끌려 가지 않고 더러운 유혹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권세에 아첨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할 줄 아는 자들을 구원의 성 안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3) 심지가 건고해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건고한 자를...”(3절)

결실한 것을 그대로 실전에 옮겨야 합니다. 한 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물질에 팔아 먹지도 말고 선택에 놀려 두 것을 풀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4) 여호와의 의뢰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4절)

구원 성곽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바벨론, 앗수르, 모압이 영원한 반석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국력을 의지하였다가 모두 망하였습니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성곽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3. 구원의 성곽의 보호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은 평강입니다

(1) 평강을 겹으로 누립니다

“... 평강을 의뢰함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주를 의뢰함입니다”(3절)

‘평강’이란 근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근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 안에 영접받은 성도들에게는 근심부터 없어집니다. 근심이 도망가지 때문에 평강의 마음은 든든하게 평강합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라’란 말씀은 말의 평강과 하늘의 평강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2) 평강을 영원토록 누립니다

“...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4절)

영원한 반석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므로 우리는 이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란 변함 없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만세반석이어서 영원합니다. 그 위에만 서면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땅 위의 것들은 모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니다. 땅 위의 국가와 정당 그리고 생명이 가진 모든 재산이 전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 위에 무엇을 쌓아 놓았다고 뽐내지도 말고 땅 위에 무엇을 쌓아 놓은 것이 없다고 비굴하지도 말고 우리는 만세 반석 위에 영원히 있을 집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지어 나가야 합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 들고 더럽고 악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모든 마요도 믿음도 약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혼자 내버려 두면 속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런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내성과 의복을 쌓으시고 성공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의 성 안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모든 좋은 것을 영혼과 육신에 늘 채워 주십니다.

셋째로,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복도 받습니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야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 교만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 놓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의 성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땅 위에서야 평강에 평강을 누리다가 평강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M**



김 성목 목사

아달라의 통치

(역대하 22:10-12)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런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믿음이 있어야 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성경 전체를 주도하는 중요한 교훈들 중 하나는 한 마음을 품는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흔들림없이 진실하고 꾸준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러한 사랑의 헌신에서 멀어진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치명적으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은 사람의 몸 속에 숨어 있다가 병균을 퍼뜨려 감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여 멸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 타협할 여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은 사람들의 종지 않은 습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상하는 본문은 불순종으로 비롯되는 엄청난 위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며드는 바알종교

아달라가 육년단 유다를 통치한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사탕했습니다. “너희는 저와도 서로 통하지 말며 저와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와가 정녕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와의 신들을 좇게 하라 하였으니 솔로몬이 저를 연애하였더라”(왕상 11:2).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 나라, 곧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 중 남 유다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승리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

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왕상 18장).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불이 뿌려진 번제물을 태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것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바알 선지자들은 마른 번제물조차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대적하여 죽이려 한 것으로 유명한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은 세계적으

아달라의 등장

셋째,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밋이 아합의 딸 아달라와 여호사밋의 딸 여호람을 결혼시킴으로써 시돈은 애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엮어진 관계로 인해 유다에도 바알 종교가 뿌리깊게 내리게 됩니다. 시돈의 사악한 바알신앙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에게까지 퍼뜨려진 것입니다. 시돈의 바알종교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각각 사악한 왕비를 수송한 셈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 그녀의 딸 아달라를 바알종교를 통해 얼마나 철저하게 포락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어땠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달라의 사악한 집권

아달라의 남편 여호람 왕이 죽었습니다. 여호람은 생전에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다한 형제들을 죽인 사악한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대하 21:4). 이는 아합의 딸이며 여호람의 악한 아내였던 아달라의 미혹에 따른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총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 아달라의 아내 아

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악한 아내였던 아달라는 또한 사악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를 악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는 아달라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아합의 길을 따라 일년간을 통치한 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달라의 사악한 통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 하였으니”(10절). 사악한 아달라는 자신의 모든 손자들을 죽인 후 자신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모두 진멸하기까지 필사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여자를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연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나 그러한 아달라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밋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라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밋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내더라”(11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으신 연약을 충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에게 그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아달라가 유다의 왕권을 빼앗아 육년 단인 바알종교를 내세워 유다를 통치하였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구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숨겨 주시고 육년 동안 제사장 여호아다의 보살핌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12절). 온 나라가 악한 세력 밑에서 무너져 있을 때 메달리라도 하나님의 전 안에서 약속의 씨인 요아스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아달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멸망과 축복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계획을 물리치시며,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돌보십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 신

앙을 소유한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악한 것을 집 안에 들이게 되면 결국 가족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일순간에 무너지는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요아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런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뜻대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전 생애는 오직 한 뜻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직 한 뜻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뜻대로 우리가 만일 안전하게 거하게 하더라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생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 관하여 하신 경고를 읽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을 향해 문을 열고 환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중심에 모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당히 타협할 것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악한 사탄이 주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직 믿을 위에 굳게 서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며 사탄의 권세를 넘겨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아멘. ■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

“형, 정말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종원

(대학부,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원)



○ 노바라 두후리에서 방글라데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원들.

말씀으로 든든해진 마음

6월 25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 오신 김성관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방글라데시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평안을 선포하셨다. 사실 교회 오는 당일 새벽까지도 웬지 모를 두려움으로 마음 한 구석은 매우 두거웠다. 전날 많은 동기들과 선·후배들의 격려 메시지와 전화화를 받으며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이 염려의 그림자는 이 말씀을 듣는 당일 아침까지도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그러나 내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던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방글라데시로 떠날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떠나기 며칠 전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셨던 주어진 이번 단기선교의 목표 말씀인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 시만 하나님이라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왕상 8:60)를 선교일이 맨 첫장에 적어놓음으로 이번 방글라데시에서의 나의 할 일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꿀맛 같은 식사

방글라데시의 ZIA 공항에 내려 철사를 나가자마자 그곳의 엄청난 습기는 내 안경을 뿌려헤 만들었고, 정말 책으

로만 보아왔던 ‘숨통이 탁 막힌다’는 표현은 그 날 내게 현실로 다가왔다. 2인 1조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로 한 우리 팀은, 돌아가는 당일의 만남과 간중거리를 약속한 채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며 각자의 길로 떠났다.

첫날 현지인 집에서 맛보았던 그곳의 전통음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 원래 카레 류를 잘 먹지 않던 내게, 처음 이들의 음식은 비참할 그 자체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 정말 감사하게도 이 음식들이 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수도인 다카에서 이들을 지낸 후, 우리 조는 멀리 떨어진 보그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4시간 여의 환상적인 버스 여행은 ‘무사도착’을 위해 기도하게 했고, 더욱 성령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도 같았던 외의 사자들은 겸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게 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말씀 증거

심한 우기라 격쟁했던 것과는 다르게 10일간의 방글라데시 생활 중 우리 조는 단 한 차례도 비다운 비를 맞아보지 않았다. 식사나 방문을 위해 집에 들어갈 때와 차를 댔을 때에만 세한 비가 쏟아졌을 뿐, 사역을 위해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그치기 일쑤였다.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뒤에야

현지인 말로 4영리를 전할 수 있었던 내게 하루는 한 부락에서 월드비전(WORLD VISION) 직원의 도움으로 현지인 교육시간 중 얼마를 우리에게 할애해 주어 모슬렘 국가에서 담담하게 20여명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평소 이 말씀을 좋아하던 내게 이 말씀은 그 날 현실로 다가왔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위에 있던 이 방글라데시에 우리 팀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위를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섬세한 이끄심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성령님 따름이 이렇게 안정된 것임을

출발 3주전,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과 예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성령님만을 의지하자마자 이 모든 계획을 무산시켰었던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 때는 얼마나 매를치게 여겼던지! 그제야 그 때의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고 안정된 것임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 출발 당일 우리 팀원들을 다시 보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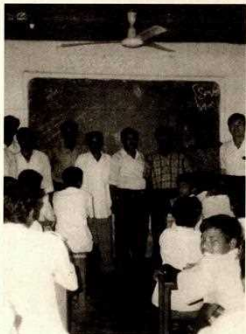
던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할 뿐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어느 하루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나와 한 조였던 원도 형제의 말이 생각난다.

“형, 정말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제의 이 고백이 앞으로 단기선교를 나갈 모든 팀들과 우리 증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빌어 끝까지 나와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 현지교회에서 가진 전도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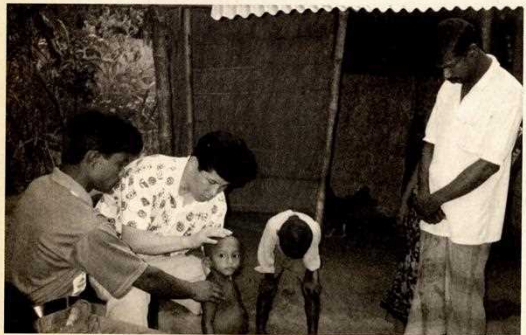
기도해 주세요!

스리랑카 단기선교팀(7월 22일 ~ 7월 30일)

1.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많은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2. 스리랑카가 복음 안에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3. 개인과 가정과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4.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5. 온전히 하나 된 팀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6.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주소서.
7. 팀원 개개인이 복음의 확신과 스리랑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소서.
8.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고 말씀에 전하게 하고 회심케 하소서.
9. 준비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10. 교통편과 날씨를 지켜 주소서.
11. 현지의 날씨(35도 정도)를 잘 견딜 건강을 허락하소서.
12. 단기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선교의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하소서.
13. 심방 일정을 돌아보시며 심방을 통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인도단기선교팀(7월 23일 ~ 8월 3일)

1.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2.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3. 팀원간에 하나 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소서.
4. 날씨와 음식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도록 지켜 주소서.
5. 델리, 바라나시, 편지, 켈카타 지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 이온 어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유의 은사를 간구하였다.

나의조국, 도전하는 신앙의 위력 2 부딪히되 겸손히 배우는 선교 정신

천 승 혁

(대학부 4학년 -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중)

지금까지 난 한국 성도들의 도전정신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하고자 애썼다(주간종교 7월 5일자). 그러면 왜 이토록 애써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활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곤 한다. 그러나 난 이런 도전정신이 좋다. 부드럽고, 잘 챙겨주고, 토닥거리려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전진을 하며 쭉쭉 나가는 신앙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라고 본다.

'충현 대학부의 부흥' 또 '단기선교' 등등 여러 가지 행사성 언어들이 많다. 그러나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님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어제의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도 한번 강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젊은이답게 뛰어들어 보는 거다. 충현 대학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일단 기도하는 거다! 끝내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다! 어둠의 세력이 두려운가? 누가 부시지나 한번 부딪혀 보는 거다! 단거리와 달리 긴 거다! 사람이 보이면 웃것이라고 붙잡고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거다! 잘 안 된다고? 그래도 될 때까지 전하는 거

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들의 단기선교는 일종의 준비의 성격이 강하게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선교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루 수 있겠는가? 또 반대로 '선교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오직 성령이 하시는 거다' 라고 너무 관박이식으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은 왜 그런 심한 선교훈련을 수년 동안 받고 떠나시는 건가? 선교는 어느 한 순간의 장난이 아니다.

수업을 해오면 배운 사람은 물 속에서 뜰 수조차 없고, 책으로만 일렁일렁 의학공부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선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들의 단기선교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단기 선교, 이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동원하고 그동안 나를 용매던 거 하나씩 다 정리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한바탕 적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다.

나중에 늙으면 가족과 생활하고에 얽매어 허덕여야 할

지도 모
르니까
발 묶이
고, 힘해
지고 약해

지기 전에, 한번 뛰어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숭부를 보는 것이다. 단! 형식적으로만 '선교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선교지를 방문하는 식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기뻐야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신 영적 전투의 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배우고 현장들을 다보고 위험한 일 아니면 자원으로해서 하고 죽을 일이 생길 것 같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열한 선교적 싸움의 근경을 전수받아야 한다. 선교현장에서 흘러지고 드러나는 실천의 능력들을 흡수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우리가 총대를 매게 될 때, 우리의 신배들이 괴망 홀미로 지고간 십자가를, 복음을 세계를 향해, 어둠의 세력을 향해 치열한 도전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충현 파이팅!



수련회1

세미한 주님의 음성

황 정 연

(대학부 1학년)



했던 절망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나의 날개로 날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더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사람의 소리와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섬에서의 텐트 생활이라 불편했지만 4박 5일을 건 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마기간이라 간간히 뿌리는 비와 강한 바람에 텐트가 흔들리고 배수구를 정비하기 위해 어지거지 소음을 구해 일하고 도대 바람 속에서 밥을 하며, 밥과 도매도 함께 먹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저는 출애굽 광야의 2백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만민의 몸을 허락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중에 있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였습니다. 저는 매년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더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사람의 소리와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 주에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었습니다. 주인공 넬루프도프가 카루사에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에게 자신을 회생하러 했던 것과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읽고 깨달았던 삶의 의미들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첫 날 점심 시간에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중 8가지 복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복에 대해 복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갑자기 지난 1학기의 생활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죄를 끊지 못하는 거지?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 같구나. 저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그리고 의를 나타내려고 생활하면서 느

수련회2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최 정 은
(대학부 4학년)

무사히 일할만 양식을 허락하심에 호통을 쳤다.

GBS를 하면서 각자의 삶, 고민을 털어놓았다. 주일마다 있는 GBS에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 아끼지 않는 조언을 해 주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힘든 일에 대한 대리재지 못하는 짜증도 있었지만, 서슴없이 말해 줄 만큼 가까워진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니 또 점심식사 시간이다. 이번엔 무엇인가 만들어 먹어볼까? 익숙해진 참에 다음 식사 메뉴까지 미리 짜본다.

이번 수련회의 두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열린 시간'.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풍성해진 주제를 놓고 선택하여 강의 듣는 시간이지만, 말 그대로 열린 시간이라는데 말대로 이 시간을 잡지게 보낼 수도 있겠다? 팀까지 물음표를 해도 좋고, 너무 피곤하면 낮잠을 곤지라도 좋다. 어쩌면 포트피지기 쉬운 시간이었지만, 3일 간 아무 일없이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되었다. 이 '열린 시간' 강의를 준비한 간사님들, 신배님들 - 군복무중 수련회에 맞춰 휴가 나온 신배들과 회사 휴가를 조개어 강의를 준비한 신배들이



돌보였다.

예배는 하루에 단 한번씩이었지만 그 밤은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특히 마지막날 예배는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밤, 대학부 제재들은 손에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며 광대한 바다를 마주 하고 생각들을 정리하며 기도를 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는 아니었지만 여름에 어울리지 않는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4박 5일간 바닷가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도착한 첫날이나 떠나지는 마지막날 무사히 배가 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최고의 감사를 드린다.

4박 5일의 수련회의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 주신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담담했던 나의 모습을 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아침 6시만 자연스럽게 기상. 화장장까지 말끔하게 마친 자매들이 있다가 하얀 성령의 단비로 세수했다는 부시시한 모습의 형제들까지 숙소 안에서, 숙소 밖 벤치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QT를 갖는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빗방은 취사장으로 흘러진다. 제로는 산디미칼이 쌓여 있지만 대체 집에서 한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향을 어떻게 만들까?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서로 간을 바꾸느라 진땀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자아내었고, 밥만 났을 때 마시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주교도소

강민호
(집사, 10교구·교정전도회)

경부과 속도
로를 거쳐
천안삼거리를 지
나 공주 시내를
거치는 동안 자연
의 신비와 아름다
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
렸습니다. 모래길
가 다 끝난 갈무
른 들녘에는 황새
들이 한가로이 이
곳 저곳에서 먹이
를 기다리는 모습
에 넉넉하고 풍요
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주
교도소에 도착한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는 교정전도회원들

후, 주의 사랑을 들으면서 새로운 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형제들이 있다는 현실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 명단 확인과 사진 촬영 설명을 거쳐서 입감한 후 '할렐루야' 어깨춤을 댄 안내원(수용자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중창단의 준비된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등으로 찬송 드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교정전도회 지도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약 비로소 300여명이나 되는 수용자 형제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불쌍한 영혼들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동안 인자하고 천사 같은 눈빛, 자신들의 가정과 가족을 그리는 참회의 눈빛을 볼 때 죄가

기도실로 안내되었고 교도소 교무계장으로부터 교도소 현실과 재소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0월 이후 범죄율의 증가로 정형 700명에 수용된 인원은 1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예배당도 구조 변경하여 수용자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믿지 않는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결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모든 영혼이 성령과 물과 피로 영원까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누가 죄인이라 할 수 있을까? 단지 형편에 따라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이 아닌 자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평온함을,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어 상담실



해외입양아 모국 방문 가족과 지낸 하루

조연숙(집사, 1교구)

한달 전 교회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되었던 한국인과 그녀의 가족이 7월 4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속식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외국인임을 민박해 본 경험도 없고 뜻밖이라 망설였으나 교회의 가까이 살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섰듯 응하였다. 토요일 오후 4시 베다니홀에서 박미선양과 그녀의 양모 Gayle를 맞이하였다. 경쾌하고 교수인 아버지와 사회복사활동, 상담을 하는 엄마 사이에서 자란 미선양은 비록 모국어인 한국어는 이해하지 못하나 훌륭한 한국 가정에서 자란 아이 못지 않게 예의 바르고 듣직하였다. 박미선양과 그녀의 양모는 이미 서포, 부산, 마산, 제주도를 거쳐 막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피곤한 기색 없이 한국인, 한국인의 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풀이하며 자신들의 여행을 생생하고 기쁘게 하였다.

마루가 가족은 불고기, 전, 김치 등으로 저녁을 대접하고 마루에 앉아 다파를 먹으며 서로의 가족사건을 보며 이야기를 섞어 나갔다. 미선양에게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베트남으로 입양되었다고 했다. 미선양의 양모인 Gayle Theorem은 그녀 나이 25세에 미선양을 입양한 것인데 어린아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동양 아이를 섰듯 입양할 생각을 했을까? 나의 퍼블리만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던 미선양도 옆에 있는데 자칫 대화가 무거워질까와 존자의 생각으로 절제하였다. 그들 부부가 하나님의 권령하지 않은 인류를 위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입양도 가능했으리라. 고마움은 비단 이들 부부에게만은 아니었다. 교육학, 학교경영을 전공한 후 이제는 법대에 진학할 것이라는 미선양은 회망에 차 있었다. 사춘기 시절, 외모와 환경의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으로 상처받은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뉴스를 TV에서 보며 생각해왔던 적이 있는 나로서는 갈등과 고민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걷고 있는 미선양이 너무도 고마웠다. 아마 친부모가 보면 더욱 감사드럽고 고마워하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나보다.

미선양은 음식의 이름, 요리법 등을 꼼꼼히 물어 보았다. 모국에 대한 뿌리 찾기 호기심이 남다른 듯했다. 그런 말을 위해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양모를 보며 딸의 관심을 같이 이해하려는 마음은 진부모나 양부모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사이라면 다 한결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아침 7시 30분 어제 사다 놓은 빵과 주스로 아침을 간단히 하고 교회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Gayle과 미선양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꺼내며 초정해주시고 감탄하는 것이었다. 사랑, 켈리, 그들이 사는 뉴욕의 정경이 담긴 엽서들. 예쁘게 포장하여 준비한 마음이 너무 고맙다. 왜 나는 전직에 국한 자녀 사를 정결에 관한 엽서들보다 예쁘게 준비할 생각을 못했을까? 주시기를 갖지 못해 아쉬웠던 정성스러 대접한 것에 대한 그들의 고마움이 내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짐을 갖게 하였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잠시나마 허락하시고 아울러 이런 행사들을 통해 초대받은 이나 초대하는 이에게 기쁨과 사랑의 나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 Theim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게 하시며 다른 입양된 아이들과 그들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으로 극복되는 위기

- 크로스웨이 훈련을 마치고 -

김병태
(목사, 7교구·성경연구원 지도)

한가한 월요일 오후 나를 포함한 네 명의 목사님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한강호텔의 문을 들어섰다. 허름한 호텔 방이지만, 창녀머로 정다운 한강의 모습이 시야로 들어왔다. 여정을 푸는 동시에 3박 4일의 땀뻘한 강의가 시작되어 슬픔없이 진행되었다. 신대원 교육보다 더 지독하게 시키는 교육일정이었다. 교회에서 준비해 준 훈련비 때문에 더 약작같이 강에 임했던 것 같다.

"크로스웨이"를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만화를 보던 날'에 대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크로스웨이 교재는 "그림"을 통해 공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몇 장의 그림으로 교재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크로스웨이를 공부하는 동안 나는 '충현교회 강단'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리가 흐르지는 한국교회의 강단을 가슴에 안고서 '복음의 회복'을 찾아나선 발보들이 이곳에서든 어딘가에서든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공부의 결정체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곧 크로스웨이 공부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이 섬기던 그 섬길의 정신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있다. 그래서 그러지 3박 4일 동안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섬겨 주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수년간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진행시켜오고 있다. 이는 후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후반기에 시작되는 크로스웨이가 충현의 권속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섬기시던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많이 신청하여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시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에서는 9월 첫주부터 주간성경공부를 위한 다양한 성경공부가 다시 시작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데 무엇이 '경'에 되었는가? 장애물은 한가지밖에 없다. '사단'이다. 사단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IM이라는 퍼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크로스웨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후반기에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부산한 충현교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호 4:6)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지체들 소식 / 탐방

지체들 소식

영아부

주님 배후신 천국잔치에 모두모두 오세요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도로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0만 2세까지의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43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잔치를 합니다. 천국의 아기들은 엄마 등에 업혀 아바 손을 잡고 모두 나와서 천국잔치에 함께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 일시: 7월 20-21일 아침 9시 30분

• 장소: 선교관 103호(송계동 통신원)

유아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성경학교

7월 20, 21일 양일간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가집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 찬양과 율동, 만물기, 동극, 놀이, 선물, 남양 간식 등... 없는 게 없이는 여름성경학교로 우리 친구들을 보내 주세요. 부록 자라는 우리 친구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임미호 통신원)

유지부

성경학교에서 무얼 할까, 무얼 배울까?

7월 20, 21일에는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어린이들도 자랑할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작지만 큰 미래의 주인공들을 유치부로 보내 주세요. 목록 제는 무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귀히 여기시는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 놀이실 것입니다. (조인혜 통신원)

중등1부

열린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안양교회에서 오는 7월 23-25일에 중헌기도로 인해 여름수련회를 엽니다. '힘겨워 하고자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심결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니노', 찬양에 대해 함께 나누는 '찬양의 생을 찾아', 성경 속 역사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의 무림지도', 앞날에 대해 살펴보는 '백 두더지 표지', 우리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하나', 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부흥회'와 '새벽기도회', 그밖에 '성경'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때 무엇이 필요하냐구요? 준비된 열린 마음이면 됩니다. (정혜미 통신원)

중등2부

선생님 자랑사리워요

요즘 우리 교사들은 27일부터 있을 수련회 준비 때문에 매주 수요일2부예배 후 따로 특별기도회를 모으고 있으며 이미 각 과별로 선발대를 조직하여 장애인 수용시설을 돌아본 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필요한 생활용품은 어떤 것이며 미반찬은 어떤 것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 것인지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또 몇몇 여선생님들께서는 율동 전문 교사들을 모셔놓고 소리 높여 찬양 연습도 하였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찬양과 율동은 짧은 대학생들의 몫이었던 데 말이예요. 이런 선생님의 모습에서 호호해 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겠습니다. (나선애 통신원)

중등3부

찬양하라 내 영혼아

7월 27-30일에 개최될 여름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때 찬양을 드리고 슬픔 때는 그냥 우울하게 보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당한 의무임을 잊고 사는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하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함께 왔던 우리의 찬양을 되찾지 않으시렵니까? (송미경 통신원)

고등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고등부에서는 이번 수련회 동안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려 합니다. 이슬람 목사님께서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김동하 목사님께서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GBS시간에 직접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는 대로, 바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에 대해 공부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좋은 은혜만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화 통신원)

청년2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청년2부 면려회는 7월 20일 새벽에 출발하여 23일까지 통영시 우도에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경주에서 놓어준 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귀한 영혼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효영 통신원)

1교구

함께 쌓아가는 공동체 사랑

베드로1지회는 부부가 함께 모인다. 새로 참석하는 분들도 부부가 인사하면

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남전도회를 돕는 손길이 될 수도 있고, 각 지체에 있어 생겼을 때도 동행하면서 한 공동체임을 더 피부로 느낀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성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며 막아 주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고 힘들수록 건강에 유의하면서 기도로서 서로 힘이 되지고 한 양한된 회창집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싸안는다. (임동계 통신원)

15교구

세상을 이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을 이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낙망이나 좌절로 떨어뜨리지 않는 못하지만 때때로 격정과 근심을 이니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특히 남성도들의 강건한 믿음이 요구되는 이 위기에 15지회 바울, 베드로전도회가 11일 관악산에서 연합으로 월례회를 가졌다. 다운 여름을 이길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서로 대접하며 특히 부부동반으로 모여 더욱 화목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 참여전도와 단기 선교 등을 위한 합심기도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모임이 되었다. (한숙정 통신원)

충원복지관

‘우리두리교회’ 자원 봉사자 모집

- 모집 기간: 7월 24일(금)까지
- 모집 대상: 고등부 학생 20명(선착순)
- 봉사 기간: 7월 30, 31일, 8월 4-6일
- 봉사 내용: 정신지체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캠프 참가
- 문의: 지역복지재활과(564-4885)

탐방 - 안수집사회

성도와 교회의 보이지 않는 다리



▲ 월례회로 모인 안수집사회.

이번에는 성도와 교회를 보이지 않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안수집사회(회장 원용철 집사)를 찾았다. 교회의 부서 곳곳에서 항상 순종하며 묵묵히 일하기에 여념이 없는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안수집사회는 120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120명의 회원들은 각각 교육부, 찬양부, 전도부, 선교회, 구제부, 예전부, 친교부, 봉사부로 나누어져서 맡은 분

야의 일들에 충성하고 있다. 그리고 3대부터 11대까지 대수별로도 나누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연락을 취한다.

교육부는 자체 세미나를 준비하거나 1년에 2회 있는 수련회를 준비한다. 이런 여름에도 8월 18-20일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찬양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있는 금요일집회 때 부부 찬양을 준비해 하거나 안수집사회 모임때 찬양을 인도한다. 또한 올 초에는 안수집사회 내에서 11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이 만들어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할 곳이 되어가리라 생각한다.

전도부는 군전도회나 경찰전도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선교회에는 해외에 나가서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선교사를 자녀에게 도서를 보내 주는 일과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 등 선교에 관한 일들을 뒤에서 도와 주고 있는 곳이다.

구제부는 회원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회원들을 돕거나 사랑방과 예배다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요청

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예전부는 회원들의 각 가정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관한 일들을 챙겨주는 부서이다.

친교부는 회원들의 친교를 맡고 있는 곳으로 봄에 산상 기도회를 열어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봉사부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부서로 항상 행사 때마다 회원들을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서 봉사는 부서이다.

안수집사들이 각각 맡고 있는 일이 많아 서로 모여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채워지는 성령님의 힘 때문이다. 이다.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자체 새벽 기도회를 갖는다. 그리고 성경연구회

기간 동안은 5시 40분부터 6시 20분까

지 1, 2학기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고 한다. 또한 매년 한 번씩 기도회에 들어가 나라를 내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안수집사회에서는 장로회 및 목회자들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안수집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안수집사회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회원들 중 사업이나 건강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 지난 5월 1일 광덕산에서 실시되었던 영성훈련을 마치고.

교회 소식

● 알 림

1. 구제헌급 안내 / 26일(다음 주일) I,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구제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26일(다음 주일)까지 교구담당 구역작업에 신청하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8월 2일(주일) 15:00-16:50, 8월 9일(주일) 15:00-15:50
· 분단: 8월 9일(주일) 16:00-16:50, 각 교구별 장소
· 교육장소: 교구별 314호(학습), 307호(세례), 310호(유아세례)
· 학습, 세례: 8월 16일(주일) 찬양예배시, 본당
· 유아세례: 8월 16일(주일) 15:00, 성당리교회
3. 예배초 및 기도회 안내 / 10교구(20일-23일, 부평교회)
· 13교구(21일-23일, 용산교회) · 15교구(20일-23일, 반식교회)
· 16교구(23일-25일, 셋방교회) · 17교구(21일-24일, 금성교회)
· 고등부 1팀(20일-24일, 화도교회), 2팀(20일-24일, 어귀교회)
· 대학부 1학년(20일-23일, 신양교회), 2학년(20일-25일, 태백전통교회)
· 청년부 1팀(20일-23일, 죽도교회), 2팀(20일-23일, 방학교회)
· 청년부 2팀(20일-23일, 우도교회)
4. 해외 단기선교 / 스리랑카(22일-29일) · 인도(23일-8월 3일)
5.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 영아부(20일-21일, 신교관 103호)
· 유아부(20일-21일, 교육관 212호) · 유치부(20일-21일, 교육관 205호)
· 중등부(23일-25일, 충현기도원) · 예비부(학생 20일-22일, 충현기도원)
6. 청년부 1학년도 사역에 사용할 물품 수집 / 수집품종: 현직 교회에 기증할
컴퓨터, 학용품, 장난감, 의류 · 수집기간: 26일(다음 주일)까지
· 수집장소: 청년부 면회실(교육관 509호)

● 모 임

1. 장로 회오세벽기도회 / 21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식 및 원로세벽기도회 / 20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찬양위원회 월례회 / 오는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4. 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국제회의실
5. 행정위원회 월례회 / 25일(토) 16:00, 충현동산교회발 1500
6. 건축위원회 회의 / 오는 15:00, 사무국
7. 제1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 /
오는 16:10, 찬양위원회실
8.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부 예배실
9. 실업인전도회 월례회 / 오는 16:00, 사랑부실
10.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3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11. 교육훈련원 월례회 / 24일(금) 18:00, 교육관
12. 권사회 제3차 월례회 / 22일(수) 19:00매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울 2 / 오는 15:00, 아멘홀
2. 바울 5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지부 2층
3. 바울 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4. 바울 1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0호
5. 바울 16 / 오는 교구모임 후, 임파뉴 헬름
6. 베드로 9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8. 베드로 10 / 26일(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1호
8. 베드로 12 / 오는 15:00, 교육관 400호
10. 베드로 14 / 오는 교구모임 후, 만나홀
10. 베드로 17 / 25일(토) 18:00, 박희원 집사택(0342-702-1646)
10. 호 6 / 25일(토) 18:00, 한강 시민의 공원 유압천 대배포(삼갈)
10. 호 17 / 25일(토) 18:00, 이종훈 집사택(0342-721-3328)
13. 한 나13 / 오는 교구모임 후, 사랑부실
14. 에스더 1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7호
15. 에스더 2 / 오는 교구모임 후, 아멘홀
15. 에스더 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4호
17. 에스더 5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지부 지하2층
18. 에스더 6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지부 지하1층
19. 에스더 7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0. 에스더 9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21. 에스더 10 / 오는 교구모임 후, 본당 2층
22. 에스더 11 / 오는 교구모임 후, 매추리홀
23. 에스더 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24. 에스더 13 / 오는 교구모임 후, 매추리홀
25. 에스더 15 / 오는 교구모임 후, 만나홀
26. 에스더 16 / 오는 15:00, 교구모임장소
27. 에스더 17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8. 루디아 2 / 20일(화) 11:00, 감리홀
28. 루디아 6 / 21일(화) 11:00, 교육관 109호
30. 루디아 8 / 26일(다음 주일) 15:00, 교육관 301호
30. 루디아 10 / 오는 교구모임 후, 만나홀
32. 루디아 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33. 루디아 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4호
34. 루디아 13 / 오는 14:40, 교육관 312호
35. 마리아 9 / 21일(화) 11:00, 정은실 집사택(971-2679)
36. 마리아 12 / 21일(화) 11:00, 김원철 집사택(0348-943-7573)
37. 마리아 13 / 오는 미추예배 후, 감리홀

금주의기도 제목

1. 김장원 원로목사와 김장원 위임목사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복의
의 강권함을 주시며 모든 구역작업과 당회
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충현전도대와 단기선교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
루치며 그 사역을 붙들며 주셔서 부흥이 될
까지 전도되게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하며 그 복음을 다
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3.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
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4. 모든 성도들과 기원과 교회에 전도와 신
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
은이들이 전도와 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
여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
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날게 하소서.
6.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각 부서가 은혜롭게 하소서.
7. 나라가 부흥하야 이땅에 기독교가
일 발흥하는 성도들을 원하며 주시고 오
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
게 하시며 충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일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
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 원로목사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김장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203	황영순	1	청년2부	문영숙(3)	1212	박기연	17	소장부	박신석(13)	1221	김지정	3	청년2부	지순애(17)
1204	이혜련	3	청년2부	신종우(3)	1213	김종태	6	청년1부	염동만(9)	1222	김성순	15	청년1부	신명선(15)
1205	허 흥	5	청년2부	신현구(8)	1214	한광현	19	대학부	양혜영(4)	1223	이수자	19		강홍선(2)
1206	박재경	6	바울		1215	김은미	19	청년1부	이진표(16)	1224	박나영	19	청년1부	
1207	추정희	4	루디아		1216	전재홍	19	청년1부	김복중(10)	1225	조신내	19	청년1부	정찬희(19)
1208	우수자	9	에스더	이명희(12)	1217	이상숙	19	청년2부	김한수(19)	1226	양수미	19	청년1부	
1209	전정호	11	베드로		1218	전병진	15	청년2부		1227	이정호	4	청년2부	
1210	김태웅	13	베드로	이승학(1)	1219	조명현	10	청년2부						
1211	이동근	17	베드로	이진규(7)	1220	이연지	10	청년2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내가 그로라”

문 하 숙(대사, 16교구)

시집 위에서 원인으로 모르게 아프기 시작하는 나를 위해서 시대에서는 여러 번 고향을 벌이셨다. 점성어마다 내 뒤에 천정 귀신들이 따라와 붙어 다닌다고 하니 본래 미신을 즐기시던 시아버님께서는 머리를 데리고 집에서 산에서 도 무당들 불러 치성을 드리셨다. 그럴 때마다 복을 구하기 위해 귀신들과 거래하고 타협하는 그 일들에 심한 굴욕감을 느꼈곤 하였다. 한편 이런 일들을 통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타락스럽고 천박한 잡신들이 있다면 크고 참된 신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유추해볼 수 있게 되었다.

한번은 국판에서 내게 무당웃을 입히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고 하였을 때

그런 천박한 것들에 벌어서 복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병든채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끝내 거절하였다 혼자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큰 수치를 입어 벌내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잡신들이 아닌 크고 참된 신이 계시다면 그분께 나를 위탁하고 싶다고.

얼마 후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받아 참석했던 구역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 주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그분과 사귀게 되었다.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 원하지만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었다. 당신이 진정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체치



않고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질서에 지쳐 메시야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수감자 여인에게 하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는 신교의 말씀은 나의 모든 의문과 방황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 답변이 되어 주었다.

그분은 더 이상 조라한 전도자가 아닌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갈구하였던 내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내 삶의 의탁자요,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절대자로서 내 앞에 우뚝 서 계셨다. 주님께서는 지난날 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친한 영혼과의 만남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7월 26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서준성(기브레델로미스트)

(찬양곡목)

· 나 근심 절망이라(한 432장)

· 지 높은 곳을 향하여(한 543장)

· 살아 계신 주 · 주기도

◆ 3부 · 5부예배

배은환 (박정희(합창모임)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주 음성 외에는(한 50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한 455장)

· 주 하나님 지으신(한 40장)

◆ 4부예배

김종식(이만찬대사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외무성 시는(한 413장)

· 예수님 날 위해 오셨네

·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한 318장)

· 사랑하는 자들이

